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백 승 준 시몬
보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강 봉 목 마티아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이 민 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연령회 회장 우 성 식 바오로 010-2899-4654

● 성 요한 보스코 대축일 및 성모신심 미사

성 요한 보스코 대축일 미사	01월 28일 (일)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	02월 02일 (토)

● 살레시오 새사제 첫미사 및 강복

- 일 시 : 2월 4일(일), 교중미사(10시30분)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재녀를 위한 기도	2월 2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2월 3일(토), 17:30	교육관
위령봉사회	2월 4일(일), 11:40	강 당
M.E.	2월 4일(일), 11:50	6교실
제대헌화회	2월 6일(화), 10:30	2교실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 시 : 2월 2일(금), 저녁 미사 후

●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 금요일)

- 제대초 봉헌 : 사무실에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기도초 : 초를 구입하여 미사 중에 축복을 받습니다.

● 설날 합동 위령미사 안내 : 2/10(토)

설날 미사 시간	아침 06:30, 낮 12:00
----------	-------------------

- 합동 위령미사 예물은 2월 08일(금)까지 반드시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설날 오후4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 설날 오후7시 미사는 토요일저녁주일미사입니다.

● 2023년 첫영성체 교리 안내

- 대상: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3~6학년 어린이(2024학년)
- 일정: 3/2~6/01, 첫영성체: 6/02(일)
- 부모님 첫 모임 : 2/24(토) 17:00, 소성전
- 교리: 소성전 교육관 (토, 14:00~15:30)
- 신청: 사무실(2/4~24까지)
- 문의: 김국화 교사 010-5336-2802(문자로 문의)

● 재의 수요일 안내 : 2/14(수)

회개와 은총의 시기인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이며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육재(만14세부터)와 단식재(만18세~60세 전까지)를 지킵니다.

- 성지가지를 가지고 계신 가정은 성전입구 수거함에 2/11(일)까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수요일 미사 시간 및 재의 예식 안내	
새벽 06:30	저녁 7시

● 알 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미사 2월5일(월), 오전10시
- 2월 병자 영성체는 지역별로 있습니다.

● 다음 주일(2/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4구역	청 소	18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월 18일 ~ 24일)

교 무 금	5,382,000원
주일헌금	4,977,500원
해외원조주일 2차 헌금	1,920,000원
김정민30만원 황옥경10만원 김성기 5만원	
감사헌금	문성동10만원 최소은/최예은10만원
13구역 국수잔치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1/28	권태희	오성환	도현만
2/04	황원선	오성환	신종구
			하재민
			구민서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일	토요일 06:30	토요일 10:30	토요일 12:00
1/28	박형순	최승일	김인기	박용환
2/04	이화봉	김인기	손상민	오광운
				박승환



오늘 주님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 게하지마 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Ⅶ. 다양한 의견

60. 끝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가능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과 사조가 전개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한 극단에서는 발전이라는 신화를 맹목적으로 믿으며, 생태 문제는 윤리적 성찰이나 커다란 변화 없이도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에서는 인간과 그 개입이 위협이 될 뿐이라서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위협하므로 지구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줄이고 모든 개입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미래 계획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에서 중용을 취한 것이어야 합니다. 해결 방법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포괄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61. 많은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교회가 단정적인 견해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이견들을 존중하면서 솔직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의 집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필요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언제나 헤쳐 나갈 길이 있고, 길을 바꿀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급속한 변화와 훼손으로 상황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표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규모의 자연재해와 사회적 위기, 심지어 경제 위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계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위험에 놓인 지역이 있으며, 종말론적인 예언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세계 체제는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지속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인간 활동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지구의 여러 지역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바로 인류가 하느님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